벤처창업연구 제11권 제4호 (통권46호)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1 No.4 pp.247-264

국내 프랜차이즈 창업과 독립 창업 집단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허은정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이건희 (영남대학교 상경대학 부교수)***

국 문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프랜차이즈 창업과 독립 창업 집단을 결정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9개의 가설을 설정하였고, 가설검증을 위해 서울, 경기, 대구, 경북에 거주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총 415부의 설문 결과 중 불성실한 답변 17부를 제외한 398부를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성 분석, 타당성 분석, 상관관계 분석, 판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프랜차이즈 창업 집단과 독립 창업 집단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일반인 전체 398개 케이스의 경우에는 창업의지, 성취욕구, 자율성, 기업가정신, 자기유능감, 교육정도, 네트워크, 연령대, 소득정도의 순서로 집단 판별력의 크기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에 따른 판별함수와 분류함수가 도출되었다. 한편, 398개 케이스 중에서 실제로 창업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178명 케이스의 경우에는 자율성이 두 집단을 구분하는 판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이에 따른 판별함수와 분류함수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 · 기업 · 학교 · 학원 등 실무에서 효율적으로 프랜차이즈 창업 집단과 독립 창업 집단을 구분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는 시사점이 있다.

핵심주제어: 개인적 특성, 창업 유형, 프랜차이즈 창업, 독립 창업, 판별 분석

Ⅰ. 서론

최근 창업자 동향을 살펴본 중소기업청과 통계청 연구에 따르면, 창업자들은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발휘, 생계 수단, 아이디어의 사업화, 성공 기회, 높은 소득, 업무의 자율성, 취업의 어려움, 자녀 양육 및 가사 활동 병행 등'의 다양한 동기로 실제 창업 전선에 뛰어 들고 있다(중소기업청, 2013).

통계청 최초 조사 시점인 1993년과 비교하였을 때 2014년에는 전국 창업자의 숫자가 59.6%의 증가율을 보였으며(통계청, 2014), 2014년 말 기준 전국 사업체수는 3백81만7천개로 2013년에 비해 140,390개(3.8%)가 증가했고, 2004년에 비해서는 62만7천개(19.7%)가 증가하여(통계청, 2014), 10년 동안 창업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에서 2014년~2015년 창업 박람회 참가자 및 창업교육 수강자 1,593명을 대상으로 예비 창업자 동향을 조사한 결과, 예비 창업자가 선호하는 창업방식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이 47.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일반 '독립 창업'이 42.8%로 나타났다.

이 때 예비 창업자가 프랜차이즈 창업이 아닌 일반 독립 창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1) 특히 혼자서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2) 가맹금이 부담되기 때문에, (3) 향후 가맹점 사업을 위해서, (4) 가맹본부를 믿을 수 없어서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동향과 더불어 선행 연구에서는 창업 여부의 성공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과 창업 유형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을 강조해왔다. 창업자 개인적 특성을 강조한 연구 중에서도 '창업자 없이는 창업이 있을 수 없다(Morris, 1998)', '창업자 특성은 개인마다 다양하다(Ardichvili, et al., 2003)'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거에는 기존 창업자의 기본적 자질과 특징(Wiklund & Shepherd, 2005; 신금순·양동우, 2007), 기존 창업자의 자본력과 조직유형(반성식·장성희, 2010; 조준희·김찬중, 2010) 등 기존 창업자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점차 예비 창업자의 기업가정신(권미영, 2013), 예비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과 예비 창업자의 개인적 특징(오효근, 2015)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또,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윤방섭, 2004), 네트워크의 깊이에 관한 연구(Granovetter, 1973), 네트워크의 범위와 크기에 관한 연구(Burt, 2000), 사회적 네트워크와 창업의지 관계에 관한 연구(김윤의, 2013)도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창업 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창업 유형 집단을 판별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2015년도 대학기업가센터 지원사업의 연구수행으로 인한 결과물임을 밝힙니다. 본 연구는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대폭 수정 및 요약하여 작성된 것임.
** 제1저자,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 April.huh.1026@gmail.com
*** 교신저자, 영남대학교 상경대학 국제통상학부 부교수, keonhee@ynu.ac.kr
· 투고일: 2016-02-24 · 수정일: 2016-05-14 · 게재확정일: 2016-06-30

개인 및 조직이 창업 유형을 판단해야 할 때 유용하게 사용 할, 타당한 근거가 있는 판별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기존문헌 연구

2.1 개인적 특성(Personal Traits)

개인적 특성의 대표적 구성 요소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있다(Matsuno et al., 2002). 기업가정신이라는 표현은 200여 년 전부터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비록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내리기는 힘들지만(Drucker, 2005) 이 표현과 개념이 이론적 및 실증적 연구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오면서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개개인이 가진 성향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시간이 흘러도 쉽게 변하지 않는 창업자 개인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사회적·심리적 연구 관점이며(Brockhaus, 1982; Sexton & Bowman, 1983), 두 번째는 이러한 개인의 특성에 더불어 개개인의 행위 자체를 강조하는 연구로, 개인적 특성의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에 대한 한계점을 채워가는 관점이다(Dollinger, 1984; Gray & Ariss, 1985).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관점을 모두 포함하는 현대적 의미에 맞추어 기업가정신적 성질을 지닌 생각과 행동을 포괄한다(Covin & Slevin, 1986).

기업가정신의 공통된 구성 요소로 혁신성(Innovation), 위험감수성(Risk-taking Propensity), 진취성(Proactiveness)을 꼽을 수 있다. 먼저, 혁신성의 의미 정립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연구자는 Schumpeter로, 그는 창업에 있어서 창업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며 '창조적 혁신'을 강조했다(Schumpeter, 1950). 이것은 새로운 조직을 창조하는 것(Gartner, 1985), 또는 창업자 또는 경영자가 새로운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으로(Stevenson & Jarillo-Mossi, 1990), 개인의 의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Patchen, 1965). 혁신성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시장 포착 기회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으로 제품과 시장조사 및 홍보활동 등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경영 활동(Covin & Slevin, 1991), 즉 창조적이고 독창적으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Quinn & Cameron, 1983; Van de Ven, 1992)을 포함한다.

두 번째로, 위험감수성은 가장 오래된 기업가정신의 성질로서,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도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의지(Sexton & Bowman, 1983), 기회를 갖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황보윤, 2011), 그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Dess & Lumpkin, 2005) 등으로 정의 되고 있으며,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과감히 도전하고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경영활동(이춘우, 1999)을 포괄하고 있다. 또, 도박과 같은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위험을 무릎 쓰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에 빗대어, 저위험 보다는 고위험을 선호하고 그 위험을 계산하여 기회를 찾고자 하는 욕구를 위험감수성(Covin & Slevin, 1989)이라 보았다.

실제 연구에서도 창업자들이 관리자들보다 위험감수 성향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며(Stewart & Roth, 2001), 위험감수성은 창업의 성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Rauch & Frese, 2007), 이러한 위험감수성이 창업의지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hao et al, 2010).

마지막으로, 진취성이란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여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창업자의 노력(Miller, 1983), 그 도전의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해 새로운 기회와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활동(Evans & Wurster, 2000), 현재 가진 자원을 뛰어넘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과정(Stevenson et al., 1989) 등으로 정의되는데, 진취성이 강한 창업자는 대부분 미래 지향적이며(Kickul & Gundry, 2002),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이루고자 끊임없이 변화를 만들며, 남들보다 좀 더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Bateman & Crant, 1993; Lumpkin & Dess, 2001). 진취성은 주로 창업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으로 연구된 바도 있으며(Baum, et al. 2001), 창업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auch & Frese, 2007).

개인적 특성의 두 번째 구성 요소로 자율성(Autonomy)을 꼽는다. 자율성은 자기결정성 이론의 대표적인 구성 요소로(Ryan, 1982), 창업자 스스로가 창업과 관련한 의사 결정의 주체라는 믿음과 그 능력, 그에 따른 창업자 자신 스스로가 행하는 경영 활동을 포함한다. 자율성은 창업을 고려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개인적 특성이자 원동력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Shane, et al., 1991; Birley & Westhead, 1994; Carter, et al., 2003; Wilson, et al., 2004; Van Gelderen & Jansen, 2006), 심리적으로나 행위적으로나 자율성을 지닌 창업자는 실제 경영 활동에서 자기유능감이 더 발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Ryan & Deci, 1995), 나아가 창업의 성과에도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auch & Frese, 2007). 자율성은 단어 그대로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 스스로의 의지로 일하고자 하는 욕구이며(Feldman & Bolino, 2000), 일을 함에 있어서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재량·독립성을 내포하며, 이러한 자율성은 창의적 업무 성과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Hackman & Oldhan, 1980). 특히 창업 유형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프랜차이즈 창업은 창업자의 입장에서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의 통제와 관리 하에 있기 때문에 자율성이 제한적이며, 독립 창업은 창업 활동의 전체가 개인의 통제와 관리 하에 있기에 자율성이 상당 부분 있다고 볼 수 있다(권미영, 2013; 오효근, 2015).

개인적 특성의 세 번째 구성 요소로 자기유능감(Self-Efficacy)을 꼽는다. 자기유능감이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다는 스스로의 믿음(Feltz, 1988)이자 목표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 행동을 관리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믿음(Bandura, 1982)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상대적인 판단이다(Weinberg & Could, 1996).

윤방섭(2004)도 자기유능감이란 특정한 업무의 수행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이라 하였고, Wilson et al.(2007)는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이 바로 자기유능감의 핵심이라고 하였다. 자기유능감은 자신이 성공했던 경험이 있거나, 상대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해보았거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나타난다고 보며, 이러한 요소는 나아가 개인이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며, 마침내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Bandura, 1997). 자기유능감은 창업자 스스로가 만족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Chen, et al.,(1998)은 자기유능감을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창업자의 중요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라고 보았으며, Krueger & Brazeal(1994)는 자기유능감이 큰 창업자일수록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처할 수 있다는 스스로의 믿음이 더 강하다고 하며, 자기유능감은 창업과 관련하여 의사결정과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개인적 특성의 네 번째 구성 요소로 성취욕구(Need for Achievement)를 꼽는다. 성취욕구란 어떠한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잘 하려는 바람으로(Murray, 1938; 이승재 & 황보윤, 2010), 성취욕구가 큰 사람은 성공하고 싶다는 바람이 큰 사람으로서 앞서 언급한 위험감수성이 높으며, 의사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의사 결정에 대해 완전히 관여하고 있는 사람으로 본다(McClelland, 1965). 성취욕구가 큰 사람은 의도적으로 높은 목표를 설정하게 되어 목표 달성 확률을 높이는 원동력을 만들어내기도 하며(McClelland, 1978), 실제로 목표 달성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exton & Bowman, 1983). 성취욕구는 창업의 성과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Stewart & Roth, 2007; Rauch & Frese, 2007), Krueger(1993)와 이지우(2000)도 성취욕구와 창업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Johnson(1990)은 23개의 실증 연구 중에서 20개의 연구 결과에서 성취욕구와 창업 관련 행동 또는 성향 사이의 정(+)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성취욕구는 분명 창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들(Krueger, 1993; 이지우, 2000; Hansemark, 2003)이 있다.

2.2 창업의지(Entrepreneurial Intention)

창업의지란 창업을 하고자 하는 마음 상태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으로(Bird, 1988), 창업을 시작할 때의 특징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이다(Crant, 1996). 창업을 할 가능성에 대해 자신이 스스로 내리는 평가라고 보기도 하며(이지우, 2000), 특히 개인적 특성 중에서도 위험감수성과 성취욕구는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용회·하규수, 2012). 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활동인 창업에 있어서, 창업의지를 종속변수로 삼고 그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영향력의 강도에 대한 연구는 개인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 등으로 나뉘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Shapero & Sokol, 1982; Gartner, 1985; Ajzen, 1991; Krueger, 1993; Shaver, 1995; 이지우, 2000; 윤방섭, 2004; 유연호·양동우, 2008; 이형택·장정, 2013; 유경태, 2012), 창업의지를 독립변수로 삼아 그 의지가 다른 창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에 있다. 창업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일련의 행동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과정이라는 관점(Katz & Gartner, 1988; Bird, 1998), 창업의지는 창업이라는 실제 행위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수로 나타난 선행 연구(Ajzen, 1982; Krueger et al., 2000), 창업의지는 창업과 관련한 행위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변수로 확인 된 선행 연구(이지우, 2000),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창업의지의 강도는 프랜차이즈 선택요인이 되어 프랜차이즈 본사의 브랜드력, 가맹점 자율성, 본사지원 조건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장정용, 2015)를 바탕으로 창업의지를 본 연구와 접목하고자 한다.

2.3 네트워크(Network)

기업가정신 분야에서는 약 30년 전부터 네트워크를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네트워크도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되기 보다는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그 개념들은 아래와 같다. 먼저 연구자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사회과학 분야의 표현으로 '네트워크'라고 보며, Laumann, et al.(1978)의 연구에서는 사회에서 이루어진 관계로 연결된 집합으로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 연결고리 전체를 네트워크라고 정의하였고, Brass, et al.(2004)의 연구에서는 그러한 관계 속에는 관계를 맺는 개인 또는 조직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특히 Burt(1992)는 개인 또는 조직의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원까지 네트워크로 보았다. 네트워크의 크기·범위·강도는 정보의 접근성, 업무의 성과, 혁신적 행동에 대해 영향력을 가지고(고금희, 2002), 네트워크의 밀도는 조직에 대한 몰입도, 이직을 하고자 하는 의도 등에 영향력을 가진다(박지혜, 2005)는 것이 확인된 연구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의 개념을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정보의 흐름과 관련하여 네트워크의 다양성 개념에서의 차원이다(Burt, 1983). 다양성 개념은 개인이 소속된 각각의 사회적 네트워크 관계의 개수를 나타내는 크기의 개념과 그 관계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범위(Range)의 개념을 포함한다. 네트워크는 개인적으로나 조직적으로 모두 중요한데(Raider & Burt, 1996), 조직 내 개개인의 네트워크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그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와 자원을 획득할 수 있으며 그것이 곧 경쟁우위가 될 수 있다는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Arthur & Rousseau, 1996), 본 연구에서는 '발이 넓다.'라는 표현이 '사귀어 아는 사람이 많아 활동하는 범위가 넓다.'임을 근거로(네이버 국어사전, 2015), '네트워크의 넓이'라고 표현한다. 또한, 네트워크의 다양성과 더불어 네트워크의 밀도(Density)와 강도(Strength)의 차원에서의 연구가 있다. 네트워크의 깊이는 각각의 관계 속에서 서로서로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와 관련된 밀도(Density)의 개념과 각 개인 및 조직이 얼마나 자주 소통하느냐 또는 얼마나 깊이 정서적으로 상호 교류하느냐와 관련된 강도(Strength)의 개념(Granovetter, 1973)을 포함한다. 사회적 네트

워크의 강도가 강하고 밀도가 높을수록, 즉 특정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자주 만날수록 업무에 대한 몰입도와 정보습득력을 높일 수 있다는 선행 연구와(Morrison, 2002) 사전적인 의미로의 '깊이'는 '겉에서 속까지의 거리가 멀다(네이버 국어사전, 2015).', '시간이 오래다(네이버 국어사전, 2015).'라는 것을 접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의 강도와 밀도를 '네트워크의 깊이'로 표현한다.

2.4 창업 유형 집단

본 연구에서는 창업 유형 집단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창업 유형 집단을 프랜차이즈 창업과 독립 창업으로 구분한다.

먼저, 프랜차이즈 창업이란 프랜차이즈 본사의 상표나 상호를 사용해서 본사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사로부터 각종 영업 지원 및 통제를 받으며 수익을 본사와 일정한 비율로 공유하는 방식의 창업으로서, 일반적으로 체인점 사업을 말한다(Peng & Robert, 1993; 한경 경제용어사전, 2015). 예를 들어 BBQ치킨, 파리바게트, 카페베네, GnB어학원, 유명 미용실의 체인점, 유명 호텔 체인 등이 있다. 프랜차이즈 창업의 장점은 주로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기업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한 소속감(Bronson & Morgan, 1998)과 독립성을 느낀다는 점(Knight, 1984), 이미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잘 갖추어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Grünhagen & Mittelstaedt, 2005), 또 안정된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Shane, 2005)을 들 수 있다. 반면 프랜차이즈 창업의 단점은 이러한 혜택과 상충되는 자율성 및 유연성을 누리기가 힘들다는 점을 대표적으로 꼽는다.

다음으로, 독립 창업이란 프랜차이즈 창업과 반대로 창업자 고유의 아이디어나 노하우를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영업상 모든 권한과 책임은 창업자에게 있다(Peng & Robert, 1993; Michael, 1999). 예를 들어 개인 떡집, 개인 찻집, 개인 학원, 개인 미용실, 벤처기업 등이 있다. 독립 창업의 장점은 투자를 시작할 때부터 운영할 때까지 모든 권한과 책임이 창업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에서 자율성과 유연성이 극대화 된다는 것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의 단점과 상반된다. 또, 창업비용이 프랜차이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들며, 제품 개발과 홍보 등의 경영 활동 전체가 창업자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창업자의 경험이 많거나 역량이 높을수록 독립 창업이 유리할 수 있다(Bates, 1995a). 하지만, 자율성이 높은 반면 성과에 대한 확신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상대적으로 경쟁업체와 창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김기영,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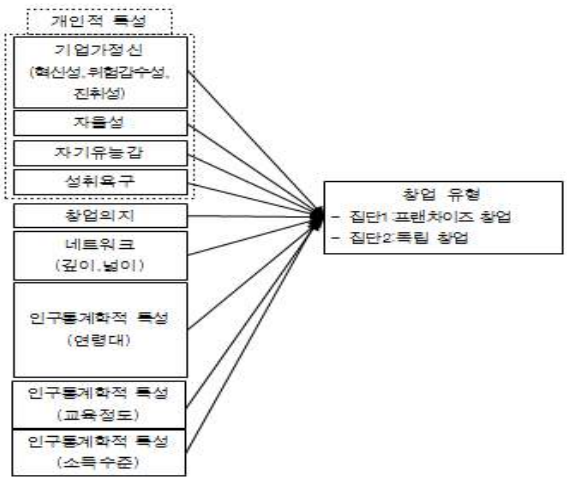
기존 연구에는 프랜차이즈 창업과 독립 창업 선택 기준을 손익분기점으로 살펴보았던 연구 결과(이주헌, 2009), 프랜차이즈 창업의 효율성이 독립 창업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Bronson & Morgan, 1998), 독립 창업의 창업 수익성과 생존력이 더 높았던 연구 결과(Bates, 1995a), 독립 창업이 프랜차이즈 창업보다 창업자 자신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고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던 연구 결과(Knight, 1984), 기업가정신과 개인의 역량이 프랜차이즈 창업 또는 독립 창업을 결정하는 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권미영, 2013), 개인적 특성 중에서도 자기유능감, 자율성, 성취욕구 등의 심리적인 특성은 프랜차이즈 창업과 독립 창업의 선호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성취욕구가 높고 인내심이 강한 사람들은 독립 창업을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오해영, 2015),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이 프랜차이즈 창업의 운영 성과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독립 창업의 운영 성과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오효근, 2015) 등의 선행 연구를 보충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개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창업 유형을 프랜차이즈 창업과 독립 창업 두 가지 집단으로 분류하여 창업 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을 하나의 독립변수 '기업가정신'으로 삼고, 그 외 개인적 특성을 각각의 독립변수 '자율성', '자기유능감', '성취욕구'로 삼았으며, '창업의지'를 또 하나의 독립변수로, 마지막으로 '네트워크'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즉, 독립변수는 '개인적 특성(기업가정신, 자율성, 자기유능감, 성취욕구), 창업의지, 네트워크'와,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연령대, 교육정도, 소득정도'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 유형 판별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창업 유형'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그 유형은 구체적으로 '프랜차이즈 창업'과 '독립 창업' 두 개의 집단을 일컫는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창업과 독립 창업의 결정 요인을 판별하기 위하여 <Figure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고, 그에 따른 가설은 다음과 같다.



<Figure 1> 연구 모형

3.1.1 개인적 특성과 창업유형에 관한 가설

Mill(1848)은 특히 위험감수성을 기업가의 핵심 성향으로 꼽았으며, Shumpeter(1950)는 혁신성을 대표적인 기업가의 특성으로 보았다. 또한 McClelland(1965)는 성취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위험감수성이 높다고 주장하였고, Carland et al.(1995)은 창업자들은 대체로 이러한 위험감수성을 갖고 불확실한 미래에 망설임 없이 도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Sexton & Bowman(1983)은 기업가는 혁신성, 자율성, 자기유능감이 강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5년 Barclays 보고서에서는 기업가와 종업원의 차이점으로 위험감수성, 혁신성, 자율성, 성취욕구, 자기유능감이 더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예비 창업자의 위험감수성과 성취욕구가 강한 사람은 독립 창업을 선호한다는 국내 연구결과(오해영, 2015)와 창업자의 개인적 성향이 창업에 있어서 중요하다는(김홍, 2012)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 기업가정신이 강한 사람은 독립 창업을 선택 할 것이다.
가설2 : 자율성이 강한 사람은 독립 창업을 선택 할 것이다.
가설3 : 자기유능감이 강한 사람은 독립 창업을 선택 할 것이다.
가설4 : 성취욕구가 강한 사람은 독립 창업을 선택 할 것이다.

3.1.2 창업의지와 창업유형에 관한 가설

Nga & Shamuganathan(2010)은 개인적 특성은 창업가가 창업을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Altinay, et al.(2012) 연구에서는 혁신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김성택(2014)은 자기유능감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유경태(2012)의 연구에서는 자율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육창환(2015)은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성이 강할수록 창업의지가 더 높다는 것을 밝혔다. 한편, 이러한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창업의지의 강도는 프랜차이즈 선택요인이 되어, 프랜차이즈 본사의 브랜드력, 가맹점 자율성, 본사지원 조건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기도 했다(장정용, 2015). 이처럼 창업의지는 중요한 변수로 측정되고 있으며, 창업의지를 종속 변수로 두는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5 : 창업의지가 강한 사람은 독립 창업을 선택 할 것이다.

3.1.3. 네트워크와 창업유형에 관한 가설

네트워크와 창업과 관련한 선행연구 중에서도 먼저 네트워크가 독립 변수로 사용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네트워크의 강도는 저성장 기업을 고성장 기업으로 전환시키는 요인이며(Zhao & Aram, 1995), 네트워크는 창업의 일련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Hoang & Antoncic, 2003). 반면, 네트워크가 종속 변수로 사용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창업과 관련한 모든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족, 친구, 지인들과의 교류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관계의 강도가 점차 강해지며, 이러한 개인적 교류가 시간이 흘러 점차 큰 규모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Starr 1990; Starr & Macnillan, 1990; Larson & Starr, 1993), 개인의 특성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도 있었으며(김영주, 2008), 나아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창업 성과 사이에는 네트워크 활동이 유의미한 조절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확인되고 있다(김윤의, 2013).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개인 또는 조직의 관점, 성별에 따른 관점, 기업가와 종업원의 관점 등 에서 다양한 각도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오고 있고(Aldrich, et al., 1986; Ibarra, 1992; Burt & Raider, 2000), 창업가의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창업의 자원을 얻을 수 있다는 점과(Birley & Cromie, 1988), 네트워크를 통해 얻어진 자원은 창업 활동과 관련된 각종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과(Johannisson, 1990), 창업가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크기와 그 네트워크와의 교류에 투자하는 시간은 사업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Ostgard & Birley, 1996),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6 : 네트워크가 넓고 네트워크가 깊은 사람은 독립 창업을 선택 할 것이다.

3.1.4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창업유형에 관한 가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창업자의 평균 연령은 38.9세, 독립 창업자의 평균 연령은 40.6세로, 독립 창업자의 평균 연령이 프랜차이즈 창업자의 평균 연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ates, 1995b). 이에 따라 연령대가 높을수록 상대적인 사회적 경험이 축적됨에 자율성을 더 발휘할 수 있는 독립 창업을 선택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또, 프랜차이즈 창업자의 경우에는 대학 졸업 이상이 26.7%, 독립 창업자의 경우에는 대학 졸업 이상이 36.2%로, 독립 창업자의 교육 정도가 프랜차이즈 창업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ates, 1995b). 이에 따라 고등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지식과 정보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독립 창업을 선택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에 필요한 자기 자본비율은 전체 창업비용 중 68.2%, 독립 창업에 필요한 자기 자본비율은 전체 창업비용 중 74.2%로 나타났다(임영균, 2011). 이에 따라 소득이 더 높은 사람일수록 독립 창업을 선택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가설7 : 연령대가 높을수록 독립 창업을 선택 할 것이다.
가설8 :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독립 창업을 선택 할 것이다.
가설9 : 소득이 더 높을수록 독립 창업을 선택 할 것이다.

3.2 설문지 구성 및 측정

설문항목은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항목들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하였다. 즉, 일상생활 속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생각과 행동,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생각과 행동을 기업가정신으로 정의하고, 일

상생활 속에서 시간과 공간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포함하여 자율성으로 정의하고,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와 경험이 더 있고 자신감이 있는 상태를 자기유능감으로 정의하며, 무언가 이루고 싶다는 생각과 이루고야말겠다는 욕구, 남보다 잘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는 욕구를 성취욕구로 정의하였다. 또, 취업보다 창업을 생각하고 창업에 대해 늘 관심 갖고 정보를 습득하는 행동을 창업의지로 정의하며, 개인의 시각에서 사회적인 인간관계의 범위, 크기, 밀도, 강도 등의 관점에서 자신이 속한 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또 그들과의 교류 횟수나 교류 시간이 많은지를 포함하여 네트워크라 정의하며, 프랜차이즈 창업과 독립 창업 두 집단을 창업 유형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은, 응답자의 임의적(任意的) 사고(思考)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문 항목에 대한 제목은 모두 삭제하였고, 또 응답자의 불성실한 답변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문항은 리커트 척도(Likert Rating Scale)를 이용한 설문 항목들 사이에 넣는 방법으로 구성하였으며, 응답자의 중심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 6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 중 기업가정신, 자율성, 자기유능감, 성취욕구, 창업의지, 네트워크 항목들은 모두 리커트 6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리커트 6점 척도의 답변은 '전혀 아니다, 매우 아니다, 조금 아니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항상 그렇다.'로 구성하였으며, 독립변수를 제외한 인구통계학적 조사와 창업 유형 선택 항목은 명목척도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업가정신을 혁신성·위험감수성·진취성으로 나누어 각각 5문항,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여 리커트 6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개인적 특성의 나머지 구성 요소인 자율성과 자기유능감과 성취 욕구를 각각 5문항으로 구성하여 리커트 6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창업의지를 5문항으로 구성하여 리커트 6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네트워크의 넓이 5문항과 네트워크의 깊이 6문항을 더하여 총 11문항을 구성하여 리커트 6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창업 유형과 성별, 결혼여부, 해외경험 여부, 직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명목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연령대, 연간소득정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등간척도, 교육정도는 서열 척도로 측정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Table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측정변수	구성 내용	문항수	척도	출처
기업가 정신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15	Likert 6점	Covin & Slevin(1991) Matsuno, et al.(2002) 권미영(2013)
자율성	의사결정 및 활동의 주체로서의 자율성	5		Carter, et al.(2003) Wilson, et al.(2004) 권미영(2013)
자기 유능감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기 능력에 대한 상대적 판단	5		Bandura(1982) Krueger & Brazeal(1994) 이지우(2000) 윤방섭(2004)
성취욕구	남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잘 하려는 바람	5		McClelland(1965) 이지우(2000)
창업의지	취업보다 창업 하고싶다는 생각	5		Chandler & Jansen(1992) 이지우(2000)
네트워크	사회적 네트워크의 넓이와 깊이	11		Burt(1983) 박미란(2012) 김윤의(2013)
창업유형	창업유형 선택지	1	명목	권미영(2013) 오해영(2015) 오효근(2015)

3.3 자료와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창업 관련 전문가 3인의 심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완성하였고, 2015년 10월 28일 예비 조사를 68부 실시하여 신뢰성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해 설문지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2015년 11월 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서울·경기·대구·경북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본격적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우편의 방법으로 설문에 응해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Google 온라인설문지를 이용한 설문 요청 220개 중 175부를 회수하였고, 오프라인으로 255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40부를 회수하였다. 총 475부 중에서 회수 된 설문지 415부 중 일부 답변에 응답하지 않아 불성실한 응답으로 판단되는 설문지 17부를 제외한 39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설문지의 최종 회수율은 83.8%이다.

Ⅳ. 연구 결과

4.1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대, 결혼여부, 교육정도, 해외경험여부, 직업, 연간소득, 창업고려여부, 창업유형선택에 대한 빈도 및 퍼센트 확인 결과, 성별은 남자 57.3%, 여자 42.7%, 연령대는 20대가 36.4%, 30대가 38.4%, 40대가 13.1%, 50대 이상이 12.1%로 나타났다. 기혼자는 38.4%, 미혼자는 61.6%였으며, 교육정도로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30.9%, 전문대학교(2년제) 졸업자가 10.3%, 대학교(4년제) 졸업자가 46.5%, 대학원 재학 이상이 12.3%를 차지했으며, 해외경험(워킹홀리데이, 어학연수, 교환학생, 자원봉사, 유학 등)이 있는 사람이 42.5%, 그렇지 않은 사람이 57.5%로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자영업자 5.3%, 대학(원)생 21.1%, 전문직 12.3%, 회사원 47.5%, 전업주부 8.8%, 기타 5%로 나타났으며, 연간소득은 1,200만 원 미만이 22.4%, 1,200만 원 이상~2,400만 원 미만이 17.6%, 2,400만 원 이상~3,200만 원 미만이 17.6%, 3,200만 원 이상~3,800만 원 미만이 9.3%, 3,800만 원 이상~4,400만 원 미만이 8.5%, 4,400만 원 이상이 14.8%로 나타났다. 전체 표본 중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은 44.7%, 고려하지 않은 사람은 55.3%로 확인되었으며, 또 전체 표본 중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호하는 사람은 29.9%, 독립 창업을 선호하는 사람은 70.1%로 확인되었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일반적 분석 결과

	항목	빈도(명)	퍼센트(%)
성별	남	228	57.3
	여	170	42.7
연령대	20대	145	36.4
	30대	153	38.4
	40대	52	13.1
	50대 이상	48	12.1
결혼여부	기혼	153	38.4

	미혼	245	61.6
교육정도	고등학교 졸업	123	30.9
	전문대학교(2년제) 졸업	41	10.3
	대학교(4년제) 졸업	185	46.5
	대학원 재학 이상	49	12.3
해외경험 여부	있다	169	42.5
	없다	229	57.5
직업	자영업	21	5.3
	대학(원)생	84	21.1
	전문직	49	12.3
	회사원	189	47.5
	전업주부	35	8.8
	기타	20	5
연간소득	1,200만 원 미만	89	22.4
	1,200만 원 이상~2,400만 원 미만	109	27.4
	2,400만 원 이상~3,200만 원 미만	70	17.6
	3,200만 원 이상~3,800만 원 미만	37	9.3
	3,800만 원 이상~4,400만 원 미만	34	8.5
	4,400만 원 이상	59	14.8
창업고려 여부	네	178	44.7
	아니오	200	55.3
창업유형 선택	프랜차이즈 창업	119	29.9
	독립 창업	279	70.1
합계		389	100

4.2 신뢰성 및 타당성

4.2.1 신뢰성 분석

설문 항목들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계수가 0.7 이상이면 수용할 수 있고, 0.8 이상이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으며(이학식·임지훈, 2013), 부적합한 변수들을 제거하고 남은 변수들의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의 <Table 3>와 같다.

<Table 3> 신뢰성 분석 결과

요인	최초 문항수	최종 문항수	최종 크론바흐 알파 계수
기업가정신 (혁신성,위험감수성,진취성)	15	6	.843
자율성	5	5	.900
자기유능감	5	3	.799
성취욕구	5	5	.901
창업의지	5	4	.918
네트워크(넓이, 깊이)	11	9	.924

내적 타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가정신 항목은 최초 문항 15개 중 6개 문항을 선정하였고, 자율성 항목은 최초 문항 5개 모두 선정하였으며, 자기유능감은 최초 문항 5개 중 3개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성취욕구 항목은 최초 문항 5개 모두 선정하였으며, 창업의지 항목은 최초 문항 5개 중 4개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네트워크 항목은 최초 11개 문항 중에 9개를 선정하였다. 최종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모두 0.7 이상으로 측정항목이 모두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있다.

4.2.2 타당성 분석

설문조사에 이용된 설문 항목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 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요인 회전 방법으로는 요인 구조를 명확하고 해석이 가장 용이한 베리멕스(VARIMAX) 방식(이학식·임지훈, 2013)을 사용하였으며, 부적합한 변수를 제거한 후 남은 변수들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는 다음의 <Table 4>과 같다.

<Table 4> 요인 분석 결과

항목	1	2	3	4	5	6	수정항목-총점 상관관계
네트워크 넓이1	0.683						0.717
네트워크 넓이3	0.770						0.764
네트워크 넓이4	0.775						0.772
네트워크 넓이5	0.784						0.771
네트워크 깊이1	0.604						0.596
네트워크 깊이2	0.699						0.681
네트워크 깊이4	0.784						0.734
네트워크 깊이5	0.803						0.750
네트워크 깊이6	0.770						0.745
성취욕구1		0.706					0.710
성취욕구2		0.784					0.759
성취욕구3		0.837					0.798
성취욕구4		0.791					0.799
성취욕구5		0.741					0.708
자율성1			0.794				0.747
자율성2			0.849				0.766
자율성3			0.836				0.782
자율성4			0.781				0.735
자율성5			0.702				0.727
혁신성1				0.682			0.687
혁신성2				0.643			0.613
위험감수1				0.718			0.629
위험감수2				0.709			0.517
진취성2				0.532			0.626
진취성3				0.648			0.672
창업의지1					0.767		0.737
창업의지2					0.810		0.872
창업의지3					0.826		0.872
창업의지5					0.759		0.770
자기유능1						0.551	0.622
자기유능2						0.770	0.676
자기유능3						0.651	0.638
고유값	5.822	4.326	3.865	3.223	3.168	1.740	
%분산	18.195	13.520	12.080	10.073	9.901	5.437	
%누적	18.195	31.715	43.794	53.867	63.768	69.204	
Kaiser-Meyer-Olkin 표본적합도					.919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 근사 카이제곱					8996.150		
자유도 (유의수준)					496 (.000)		

고유값(Eigenvalue)이 클수록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하며, 전체분산에 대한 그 요인의 설명력은 %분산으로 확인하며, 전체분산에 대한 추출된 요인들의 설명력은 %누적으로 확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유값1을 이용한 결과 6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누적을 통해 6개 요인들이 전체분산의 69.204%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인 분석 결과 공통성(Communality)의 결과값이 0.5 미만인 변수들은 제거하였고, 카이저 정규화를 사용한 베리멕스 방식으로 6회 반복 회전한 결과값들의 요인구조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특히 KMO와 Bartlett의 검정 결과에서는 표본의 적합도가 .919으로 나타나 기준치 .50보다 높게 나타났고,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 유의수준이 .000으로 나타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적임을 보았을 때,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4.3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 이용된 각 변수들 간의 관련성에 대한 정도와 강도와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앞서 신뢰성 분석과 요인 분석으로 최종 확인 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를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성취욕구와 자기유능감의 상관계수가 .617로 가장 높았고, 네트워크와 자율성의 상관계수가 .224로 가장 낮았으며,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의 <Table 5>와 같다.

<Table 5> 상관 관계 분석 결과

		기업가정신	자율성	자기유능감	성취욕구	창업의지	네트워크
기업가정신	Pearson 상관계수	1	.431**	.522**	.519**	.533**	.488**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자율성	Pearson 상관계수	.431**	1	.420**	.419**	.485**	.224**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자기유능감	Pearson 상관계수	.522**	.420**	1	.617**	.402**	.518**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성취욕구	Pearson 상관계수	.519**	.419**	.617**	1	.414**	.438**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창업의지	Pearson 상관계수	.533**	.485**	.402**	.414**	1	.485**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네트워크	Pearson 상관계수	.488**	.224**	.518**	.438**	.485**	1
	유의확률	.000	.000	.000	.000	.000	

* p < .05, ** p < 01 (양쪽)

4.4 분석방법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두 집단 판별 분석(Two-Group Discrimina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판별 분석(Discriminant Analysis)은 독립변수가 간격척도 혹은 비율척도로 측정되고, 종속변수가 명목척도로 측정된 경우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조사하는 분석방법으로, 독립변수의 특성을 바탕으로 종속변수의 선택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학식·임지훈(2015)의 SPSS 22.0 매뉴얼에 따라 종속변수의 범주가 '프랜차이즈 창업 집단'과 '독립 창업 집단' 두 개이므로 두 집단 판별 분석을 이용하였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변수가 더 유의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입력방식'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일반인 전체 케이스'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와 '창업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케이스'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기본적으로 집단 내 분산에 비하여 집단 간 분산의 차이를 최대화하는 독립변수들의 계수를 찾아냈고, 다음으로 독립변수들의 선형결합을 나타내는 판별함수(Discriminant Function)를 도출하였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분류 대상자들의 소속 집단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분류함수(Classification Function)를 도출하였다.

4.5 실증분석결과

4.5.1 집단별 평균 및 표준편차

<Table 6> 집단별 평균 및 표준편차: 일반인 전체 케이스

창업 유형 집단		평균	표준편차	유효한 N(목록별)	
				가중되지 않은	가중치 부여된
프랜차이즈 창업	기업가정신	3.539	.858	119	119.000
	자율성	4.171	.984	119	119.000
	자기유능감	3.988	.779	119	119.000
	성취욕구	4.267	.849	119	119.000
	창업의지	3.195	1.166	119	119.000
	네트워크	3.479	1.004	119	119.000
	연령대	1.916	.925	119	119.000
	연간소득	3.000	1.803	119	119.000
	교육정도	14.403	2.076	119	119.000
독립 창업	기업가정신	3.891	.846	279	279.000
	자율성	4.585	.949	279	279.000
	자기유능감	4.238	.880	279	279.000
	성취욕구	4.630	.751	279	279.000
	창업의지	3.954	1.105	279	279.000
	네트워크	3.695	.965	279	279.000
	연령대	2.046	1.014	279	279.000
	연간소득	2.982	1.680	279	279.000
	교육정도	14.974	2.097	279	279.000
총계	기업가정신	3.786	.864	398	398.000
	자율성	4.461	.977	398	398.000
	자기유능감	4.164	.858	398	398.000
	성취욕구	4.521	.798	398	398.000
	창업의지	3.727	1.175	398	398.000
	네트워크	3.631	.980	398	398.000
	연령대	2.007	.989	398	398.000
	연간소득	2.987	1.715	398	398.000
	교육정도	14.804	2.104	398	398.000

<Table 7> 집단별 평균 및 표준편차: 창업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케이스

창업 유형 집단		평균	표준편차	유효한 N(목록별)	
				가중되지 않은	가중치 부여된
프랜차이즈 창업	기업가정신	4.024	.679	34	34.000
	자율성	4.270	.963	34	34.000
	자기유능감	4.254	.715	34	34.000
	성취욕구	4.670	.779	34	34.000
	네트워크	4.130	.965	34	34.000
	연령대	1.941	.776	34	34.000
	교육정도	14.941	2.102	34	34.000
	연간소득	3.352	1.612	34	34.000
독립 창업	기업가정신	4.149	.755	144	144.000
	자율성	4.834	.866	144	144.000
	자기유능감	4.435	.819	144	144.000
	성취욕구	4.729	.717	144	144.000
	네트워크	4.006	.966	144	144.000
	연령대	1.881	.873	144	144.000
	교육정도	15.180	2.054	144	144.000
	연간소득	3.166	1.746	144	144.000
총계	기업가정신	4.125	.741	178	178.000
	자율성	4.727	.910	178	178.000

	자기유능감	4.400	.802	178	178.000
	성취욕구	4.718	.728	178	178.000
	네트워크	4.030	.964	178	178.000
	연령대	1.893	.853	178	178.000
	교육정도	15.134	2.059	178	178.000
	연간소득	3.202	1.718	178	178.000

위의 <Table 6>와 <Table 7>을 통해 '일반인 전체 케이스'와 '창업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케이스'의 프랜차이즈 창업과 독립 창업 두 집단의 데이터 개수와 집단별 평균, 표준편차 값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인 전체 케이스'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독립 창업 집단이 프랜차이즈 창업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창업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케이스'의 경우는 네트워크, 연령대, 연간소득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독립 창업집단이 프랜차이즈 창업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4.5.2 집단 평균의 동질성 검정

이어서 집단 평균의 동질성 검정을 통해 프랜차이즈 창업과 독립 창업의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 수 있었다. 먼저 일반인 전체 케이스의 경우에는 아래의 <Table 8>과 같다.

<Table 8> 집단 평균의 동질성 검정 결과: 일반인 전체 케이스

그룹 평균 등식 검정					
	윌크스람다	F	df1	df2	유의수준
기업가정신	.965	14.355	1	396	.000
자율성	.962	15.526	1	396	.000
자기유능감	.982	7.193	1	396	.008
성취욕구	.957	17.957	1	396	.000
창업의지	.912	38.043	1	396	.000
네트워크	.990	4.071	1	396	.044
연령대	.996	1.454	1	396	.229
연간소득	1.000	.009	1	396	.924
교육정도	.985	6.232	1	396	.013

F통계량의 값이 클수록 전체 분산의 비율이 커지므로 판별력이 높아지는데, '일반인 전체 케이스'에서는 F값이 가장 큰 '창업의지'의 판별력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성취욕구', '자율성', '기업가정신', '자기유능감', '교육정도', '네트워크', '연령대', '연간소득' 순으로 판별력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연령대'와 '연간소득'을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의 평균 차이에 대한 유의 수준은 모두 α=0.05보다 작으므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고, 따라서 이 변수들에 의한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때 윌크스 람다는 '그룹 내 분산/(그룹 내 분산 + 그룹 간 분산)'을 나타내는 비율로, 그룹 간 분산이 그룹 내 분산에 비해 클수록 0에 가까워지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1에 가까워지는데(이학식·임지훈, 2015), 위 결과에서는 창업의지의 윌크스 람다 값은 가장 작고 F통계량 값은 가장 크므로 이 변수의 판별력이 대체로 가장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창업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케이스는 아래의 <Table 9>과 같다.

<Table 9> 집단 평균의 동질성 검정 결과: 창업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케이스

그룹 평균 등식 검정					
	윌크스람다	F	df1	df2	유의수준
기업가정신	.996	.779	1	176	.379
자율성	.940	11.156	1	176	.001
자기유능감	.992	1.393	1	176	.240
성취욕구	.999	.177	1	176	.674
네트워크	.997	.451	1	176	.503
연령대	.999	.132	1	176	.717
교육정도	.998	.370	1	176	.544
연간소득	.998	.322	1	176	.571

'창업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케이스'에서는 '자율성'의 F값이 가장 크므로 가장 판별력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자율성의 윌크스 람다의 값이 가장 작고 유의수준이 가장 낮기에, 이 변수의 판별력이 대체로 가장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자율성에서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변수에 의해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로써, 일반인 케이스와 창업 의지가 있는 케이스 모두 프랜차이즈 창업과 독립 창업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4.5.3 공분산 행렬의 동일성 검정(BOX 검정)

판별 분석에서는 다변량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각 집단의 공분산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성립된다. 따라서 집단에 대한 공분산 행렬의 동일성 검정을 위하여 Box의 검정 결과값을 확인하였다. 유의확률(P-value)이 비유의적이면(p>0.05) 공분산 행렬 동일성 가정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이학식·임지훈, 2015), 유의확률(0.892)은 0.05보다 크므로 공분산 행렬 동일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인 전체 케이스'의 Box의 M 실시 결과는 <Table 10>와 같다.

<Table 10> 공분산 행렬의 동일성 검정 결과: 일반인 전체 케이스

Box의 M		.624
F	근사	.207
	df1	3
	df2	1059857.913
	유의수준	.892

다음으로 '창업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자'들의 케이스는 <Table 11>과 같다. 이 경우도 유의확률(0.432)은 0.05보다 크므로 공분산 행렬 동일성 가정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Table 11> 공분산 행렬의 동일성 검정 결과: 창업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케이스

Box의 M		0.624
F	근사	0.618
	df1	1
	df2	27014.619
	유의수준	0.432

이로써, 일반인 케이스와 창업 의지가 있는 케이스 모두 프랜차이즈 창업과 독립 창업의 각 집단의 공분산이 동일하다는 가정이 성립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4.5.4 고유값, 윌크스 람다, 정준상관계수

판별 분석에서는 고유값(Eigenvalue)이 클수록, 윌크스 람다

(Wilks' λ)의 값이 작을수록, 정준상관계수(Canonical Correlation)의 값이 클수록 판별함수의 판별력이 높다고 본다. 판별 함수가 총분산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가를 나타내는 고유값과 판별 함수의 판별 능력을 나타내는 정준상관계수를 살펴보았고, '일반인 전체 케이스'의 결과값은 아래의 <Table 12>과 같다.

<Table 12> 고유값, 윌크스 람다, 정준상관계수: 일반인 전체 케이스

고유값				
함수	고유값	분산의 %	누적률(%)	정준상관분석
1	.110a	100.0	100.0	.315
Wilks의 람다				
함수 검정	윌크스 람다	카이제곱	df	유의수준
1	.901	41.372	2	.000

독립변수들에 걸쳐 두 그룹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카이제곱 검증 결과, 유의확률 0.05보다 작은 값으로 검증 결과 유의적으로 나타났으므로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들은 결합적으로 두 집단을 구분하는 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정준상관계수는 판별점수와 집단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준상관계수를 제곱한 값 $(.315)^2 = .0992$를 살펴보면 판별점수 분산의 9.92%가 분석에 사용된 독립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학식·임지훈, 2015). 다음으로 '창업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자들의 케이스'의 경우는 다음의 <Table 13>과 같다.

<Table 13> 고유값, 윌크스 람다, 정준상관계수
: 창업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케이스

고유값				
함수	고유값	분산의 %	누적률(%)	정준상관분석
1	.063a	100.0	100.0	.244
Wilks의 람다				
함수 검정	윌크스 람다	카이제곱	df	유의수준
1	.940	10.786	1	.001

카이제곱 검증 결과, 유의확률 0.05보다 작은 값으로 검증 결과 유의적으로 나타났으므로 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들은 결합적으로 두 집단을 구분하는 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정준상관계수를 제곱한 값 $(.244)^2 = .0595$를 살펴보면 판별점수 분산의 5.95%가 분석에 사용된 독립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학식·임지훈, 2015).

이처럼 일반인 전체 케이스와 창업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케이스 모두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이 결합적으로 두 집단 구분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5.5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와 판별력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Standardized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Coefficient)의 계수의 절대값은 각 변수가 집단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나타내며, 그 절대값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판별력(Discriminant Power)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일반인 전체 케이스'의 결과값은 <Table 14>에서 볼 수 있듯, 창업의지와 교육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는 정준판별함수에 포함되지 않았고, <Table 15>의 구조행렬을 살펴보면, 창업의지, 교육정도의 순으로 판별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와 같이 두 변수의 판별함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것이 확인되며, 이 때 판별적재값은 아래와 같이 창업의지, 자율성 순서로 나타났고, 그 외 변수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Table 14>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 일반인 전체 케이스

표준화 정준 판별 함수 계수	
	함수
	1
창업의지	.926
교육정도	.361

<Table 15> 구조 행렬: 일반인 전체 케이스

구조 행렬	
	함수
	1
창업의지	.933
기업가정신a	.529
네트워크a	.475
자기유능감a	.441
자율성a	.438
성취욕구a	.415
교육정도	.378
연간소득a	.251
연령대a	.064

a. 분석에서 사용되지 않은 변수

'창업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케이스'의 경우에서는 아래의 <Table 16>에서 볼 수 있듯, 자율성 항목만 표준화 정준판별함수에 포함되었고, 자율성만이 두 집단을 판별하는 데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으며, <표 17>의 구조행렬을 통해 자율성 변수와 판별함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고, 그 외의 변수는 분석에서 제외되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6> 표준화된 정준판별함수: 창업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케이스

표준화 정준 판별 함수 계수	
	함수
	1
자율성	1

<Table 17> 구조 행렬: 창업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케이스

구조 행렬	
	함수
	1
자율성	1
창업의지a	0.333
기업가정신a	0.313
자기유능감a	0.304
네트워크a	0.16
교육정도a	0.113
연간소득a	0.092
연령대a	0.011

a. 분석에서 사용되지 않은 변수

이로써, 일반인 전체 케이스의 경우에는 창업의지, 성취욕구, 자율성, 기업가정신, 자기유능감, 교육정도, 네트워크, 연령대, 소득정도의 순서로 판별력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중에서도 창업의지와 교육정도는 더욱 중요한 판별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즉, 이 변수들의 성향이 강할수록 독립 창업을 택할 것이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또, 창업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자율성, 자기유능감, 기업가정신, 교육정도, 소득정도, 성취욕구, 연령대의 순서로 판별력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중에서도 자율성이 더욱 중요한 판별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즉, 자율성이 강할수록 독립 창업을 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4.5.6 표준화되지 않은 정준판별함수와 중심값

표준화되지 않은 정준판별함수(Unstandardized Canonical Discriminant Function Coefficient)의 계수는 회귀분석에 회귀계수와 유사한 것으로, 판별 함수를 도출하여 판별점수를 계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중심값(Centroid)은 각 집단의 판별함수 상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낸다.

판별 함수는 분석의 대상이 된 응답자들 각각의 판별점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며, '집단의 수-1'과 '독립변수의 수' 중에서 작은 수만큼 도출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집단의 수-1'를 적용하여 하나의 식이 도출되며, 기존의 분석 대상이 되었던 응답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각 집단의 중심값을 계산하는 데에 사용된다. 이것은 새로운 응답자가 어느 그룹에 분류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분류함수와는 구별된다(이학식·임지훈, 2015). 먼저 <Table 18>에서 '일반인 전체 케이스'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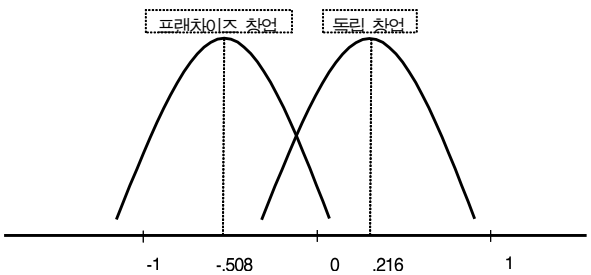
<Table 18> 표준화되지 않은 정준판별함수와 중심값 : 일반인 전체 케이스

정준 판별 함수 계수	
	함수
	1
창업의지	.824
교육정도	.172
(상수)	-5.625

그룹 중심값의 함수	
창업유형선택	함수
	1
프랜차이즈창업	-.508
독립 창업	.216

D=0.824(창업의지)+0.172(교육정도)-5.625

위 판별함수에 분석의 대상이 된 응답자들의 자료를 대입하여 판별점수를 계산할 수 있고, 프랜차이즈 창업 집단의 중심값은 -.508, 독립 창업 집단의 중심값은 .216으로, 이 역시 프랜차이즈 창업 집단이 평균값 0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아래의 <Figure 2>와 같이 나타난다.



<Figure 2> 각 집단의 중심값 : 일반인 전체 케이스

'창업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케이스'의 결과값은 <Table 19>과 같이 확인되며, 그에 따른 판별함수 식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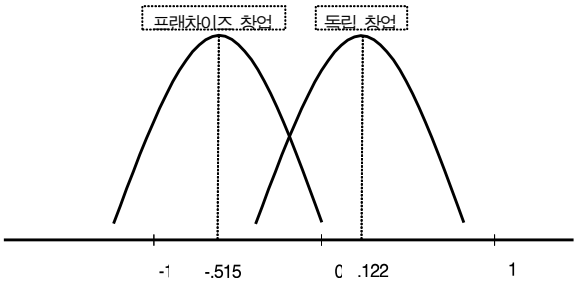
<Table 19> 표준화되지 않은 정준판별함수와 중심값 : 창업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케이스

정준 판별 함수 계수	
	함수
	1
자율성	1.129
(상수)	-5.336

그룹 중심값의 함수	
창업유형선택	함수
	1
프랜차이즈 창업	-.515
독립 창업	.122

D = 1.129(자율성) - 5.336

위 판별함수에 분석의 대상이 된 응답자들의 자료를 대입하여 판별점수를 계산할 수 있고, 프랜차이즈 창업 집단의 중심값은 -.515, 독립 창업 집단의 중심값은 .122으로, 이 역시 프랜차이즈 창업 집단이 평균값 0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아래의 <Figure 3>와 같이 나타난다.



<Figure 3> 각 집단의 중심값 : 창업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케이스

이로써,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준판별함수계수와 판별함수식을 이용하여 분석에 사용된 대상들 개개인의 독립변수의 값을 대입하여 판별점수를 구하고, 나아가 각 집단별 평균판별점수를 구할 수 있다. 이 평균판별점수를 이용하여 두 집단을 구분하는 중심값을 확인하였으며, 개별 표본의 판별점수와 중심값을 비교하여 집단을 분류할 수 있다(채서일, 2005).

4.5.7 분류함수(Calssification Function)

다음으로 각 집단의 판별 점수를 결정하는 각 그룹별 분류함수를 살펴보았다. 분류함수는 Fisher의 선형판별함수(Linear Discriminant Function)이라고도 부르며, 앞서 살펴본 정준판별함수와 달리 분류함수는 집단의 수만큼 도출되기에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식이 만들어지며, 이것은 기존 분석의 대상자 또는 새로운 분류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어느 집단으로 분류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데 사용된다(이학식·임지훈, 2015).

'일반인 전체 케이스'의 분류함수를 프랜차이즈 창업 집단과 독립 창업 집단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아래의 <Table 20>는 두 개의 독립변수에 대한 분류함수 계수를 나타내며, 그에 따른 분류 함수식은 다음과 같다.

<Table 20> 분류 함수 : 일반인 전체 케이스

	창업유형선택	
	프랜차이즈 창업	독립 창업
창업의지	2.419	3.015
교육정도	3.27	3.395
(상수)	-28.109	-32.076

프랜차이즈 창업 Y = 2.419(창업의지) + 3.27(교육정도) - 28.109
독립 창업 Y = 3.015(창업의지) + 3.395(교육정도) - 32.076

위의 분류함수계수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일반인 전체 케이스'의 경우에는 창업의지의 판별력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성취욕구, 자율성, 기업가정신, 자기유능감, 교육정도, 네트워크, 연령대, 연간소득 순으로 판별력이 있음을 설명하였는데, 창업의지와 교육정도 변수들의 분류함수계수는 독립 창업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므로, 새로운 분류 대상이 나타났을 때 창업의지와 교육정도가 높은 사람이 독립 창업을 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창업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케이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 창업 집단과 독립 창업 집단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아래의 <Table 21>은 하나의 독립변수에 대한 분류함수 계수를 나타나며, 그에 따른 분류 함수식은 다음과 같다.

<Table 21> 분류 함수 : 창업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케이스

	창업유형선택	
	프랜차이즈 창업	독립 창업
자율성	5.443	6.162
(상수)	-12.315	-15.588

프랜차이즈 창업 Y = 5.443(자율성) - 12.315
독립 창업 Y = 6.162(자율성) - 15.588

위의 분류함수계수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창업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자율성의 판별력이 가장 높음을 설명하였는데, 자율성 변수의 분류함수계수는 독립 창업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므로, 새로운 분류 대상이 나타났을 때 자율성이 높은 사람은 독립 창업을 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즉, 앞서 도출된 분류함수를 이용하여 응답자들의 집단을 분류할 수 있다. 기존의 분석 대상이 된 응답자나 새로운 분류 대상에 대하여 그들의 독립 변수 값들을 각각 프랜차이즈 창업 집단과 독립 창업 집단의 분류함수에 각각 대입하여 계산하여, 그 중 큰 값으로 나타나는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4.5.8 판별적중률(Hit ratio)

<Table 22> 판별적중률: 일반인 전체 케이스

		창업유형선택	예측 소속그룹		총계
			프랜차이즈 창업	독립 창업	
원본	개수	프랜차이즈 창업	82	37	119
		독립 창업	94	185	279
	%	프랜차이즈 창업	68.9	31.1	100
		독립 창업	33.7	66.3	100
a 원래 그룹화된 케이스의 67.1%이(가) 올바르게 분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판별함수가 조사 대상들을 얼마나 잘 분류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Hit ratio를 살펴보았다. 이 값은 회귀분석의 R^2에 비유되며(이학식·임지훈, 2015), '일반인 전체 케이스'의 경우에는 Hit ratio가 67.1%로 전체 케이스의 67.1%를 잘 분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프랜차이즈 창업 집단의 119명 중 82명을, 독립 창업 집단의 279명 중 185명을 정확하게 분류하였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위의 <Table 22>와 같이 정리된다.

다음으로 '창업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자'의 경우에는 Hit ratio가 66.3%로 전체 케이스의 66.3%를 잘 분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프랜차이즈 창업 집단의 34명 중 22명을, 독립 창업 집단의 144명 중 96명을 정확하게 분류하였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다음의 <Table 23>과 같이 정리된다.

<Table 23> 판별적중률 : 창업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케이스

		창업유형선택	예측 소속그룹		총계
			프랜차이즈 창업	독립 창업	
원본	개수	프랜차이즈 창업	22	12	34
		독립 창업	44	100	144
	%	프랜차이즈 창업	64.7	35.3	100.0
		독립 창업	30.6	69.4	100.0
a 원래 그룹화된 케이스의 68.5%이(가) 올바르게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창업 유형 선택요인을 확인하는 데 설명력이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실제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도 판단력 있는 근거로 사용 될 것으로 본다.

Ⅴ. 결론

일반적으로 창업과 관련하여 개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다방면에서 이루어져왔다. 그 중 프랜차이즈 창업 또는 독립 창업이라는 두 가지 창업 유형의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는 최근 관심받기 시작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업가정신 또는 개인적 특성에 대한 연구로 주로 이루어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에 대한 연구에 자율성, 자기유능감, 성취욕구, 창업의지, 사회적 네트워크를 포함하여 기존 연구를 심화 및 확장시켰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일반인 전체 케이스'와 '창업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케이스' 두 종류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SPSS 22.0 판별 분석의 단계입력 방식으로 분석했으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한다.

첫째, 집단 평균의 동질성 검정결과 프랜차이즈 창업과 독립 창업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둘째, 일반인 전체 케이스의 경우와 창업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케이스 모두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이 결합적으로 두 집단 구분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반인 전체 케이스의 경우에는 창업의지와 교육정도의 순서대로 판별력이 있음이 확인되었고, 창업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자율성이 판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준판별함수계수와 판별함수 식을 이용하여, 분석에 사용된 대상들 개개인의 판별점수를 도출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프랜차이즈 창업 집단과 독립 창업 집단에 대한 분류함수를 이용하여, 향후 새로운 분류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속하게 될 집단을 예측할 수 있다. 즉, 본 연구를 통해 일반적으로는 프랜차이즈 창업과 독립 창업 집단을 결정하는 데에 창업의지와 교육정도가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고, 반면 창업의지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율성이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창업 관련 연구가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을 바탕으로 창업 의지에 미치는 연구였다면, 본 연구는 이에서 진일보하여 프랜차이즈 창업과 독립창업을 결정하는 변수를 측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결과는 정부, 기업, 학교, 학원 등 실무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분류함수는,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에서 가맹점주를 모집할 때 예비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 창업과 독립창업 중에 어떤 유형으로 선택할 지 예측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학교나 학원 등의 창업 교육 또는 창업 상담 시 내담자에게 적합한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가 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 결과는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극복방안 또는 창업성공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다른 요인에서 찾기보다는 창업자 자신으로부터 찾아낼 수 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2015년 10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8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창업 실패에 따른 두려움과 침체된 경기 등으로 인해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2013년에 비해 5% 감소했는데, 이러한 두려움의 극복 방안을 환경에서 찾기 이전에 자기 자신 스스로에서부터 찾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 대상 398명 중 119명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을 하였고, 279명이 독립 창업을 선택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즉, 현 시점에서는 프랜차이즈 창업보다는 독립 창업을 선호하는 일반적으로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증가하면서 독립 창업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이 가진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업무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결과일 것으로 사료되며, 결과적으로 독립 창업 선호자가 대체로 더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가장 큰 결실은 프랜차이즈 기업의 가맹전략 수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예비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정형화된 지침을 따라야함에 있어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전략을 구사할 수 없다는 것에 불만을 가질 수 있음을 예측하여 적절한 가맹 시스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자율 프랜차이즈(voluntary franchise)' 또는 '자율 체인점(voluntary chain)'이라는 이름으로, 상호만 함께 쓰고 상품이나 서비스, 인테리어 디자인 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하지 않거나, 식자재만 공급받고 그 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가맹점주의 재량으로 맡겨지는 형태의 점포가 생겨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현 시점에서의 예비 가맹점주들이 독립 창업을 선호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그 선호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자율성임을 감안하였을 때, 실제 계약에 앞서 예비가맹점주가 기존의 프랜차이즈 형태와 자율 프랜차이즈 형태 중 어느 것에 더욱 적합할지에 관하여, 연구에서 도출된 판별함수와 분류함수를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기존의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가맹전략 수립에도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Ⅵ.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불특정 다수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가 다소 일반적이며, 특정 산업이나 특정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연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좀 더 큰 표본을 선정하거나 구체적인 집단을 선정하여 연구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국내의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분류함수를 활용할 시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2015년 Barclays 보고서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싱가포르 기업가들의 특징을 다양한 구성요소로 측정한 결과, 그 결과 값이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실제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외국인도 다수 존재하며 그 출신 국가도 다양해지고 있기에, 향후 연구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하는 표본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또 국가마다 문화적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전 세계의 각 국가별 창업 실태를 조사하고, 국가별로 다른 표본을 구성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나아가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 외에도 다른 유의한 변수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 사용된 개인적 특성의 구성 요소를 확대하여 살펴보거나, 또는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내부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소를 포함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연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준판별함수와 분류함수가 유의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REFERENCE

고금희(2002). *조직구성원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미영(2013).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정신 특성에 따른 창업 경영형태 선호도 차이에 관한 연구: 프랜차이즈 창업과 독립 창업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기영(1999). 외식업의 창업유형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산업학회, *Tourism research,* 13(1), 69-84.

김성택(2014). *중국대학생의 심리적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주(2008). *개인특성이 조직 내 사회적 네트워크 크기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네트워크 크기와 강도의 효과*,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윤의(2013). *물리적 환경 및 심리적 특성이 외식업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네트워크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김홍(2012). 대학생의 창업요인과 창업의지와의 관계 연구, *벤처창업연구,* 7(1), 263-271.

네이버 국어사전(2015). *넓다 & 깊다,* Retrieved 2015-11-01 from URL. http://krdic.naver.com/

네이버 한경 경제용어사전(2015). *프랜차이즈,* Retrieved 2015-11-15 from URL.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62853&cid=42107&categoryId=42107.

박지혜(2005). *개인의 조직 내·외 경력 네트워크 특성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미란(2012). *사회적 기업 경영자의 리더십 역량과 기업환경특성 및 네트워크 활동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복지행정대학원.

반성식·장성희(2010). 조직 유형을 고려한 여성창업가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을 중심으로,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23(2), 813-836.

신금순·양동우(2007). 외식업 창업자의 특성과 서비스지향적 노력이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 20(6), 2639-2666.

오효근(2015). *귀금속 소매업의 프랜차이즈와 비프랜차이즈 창업 성공요인 비교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 융합기술대학원.

오해영(2015).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이 창업유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유경태(2012). *대학생의 개인특성과 경력지향성이 창업교육에 따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유연호·양동우(2008).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1(5), 2347-2368.

육창환(2015). *창업가의 특성요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멘토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윤방섭(2004). 창업의지에 결정요인, *한국산학경영학회 산학경영연구,* 17(2), 89-110.

이승재·황보윤(2010). 단기 창업교육이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변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 *벤처창업연구,* 5(1), 19-44.

이주헌(2009). 독립자영업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사례의 사업성 분석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4(4), 27-43.

이지우(2000). 개인특성과 창업의지 사이의 관계, *한국중소기업학회, 중소기업연구,* 22(1), 121-146.

이춘우(1999). *조직앙트라프러뉴십의 역할과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이학식·임지훈(2013). *SPSS 20.0 매뉴얼,* 서울: 집현재.

이학식·임지훈(2015). *SPSS 22.0 매뉴얼,* 서울: 집현재.

이형택·장정(2013). 중국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유통업 분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통경영학회, 유통정보학회,* 16(6), 133-143.

임영균(2011). 가맹점사업자는 자영업자와 어떻게 다른가 : 경험적 증거와 정책적 시사점 : 창업자 경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유통연구, 16(5), 141-169.*

장정용(2015), *예비창업가의 창업가정신과 개인적 특성이 창업의지와 프랜차이즈 선택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용회·하규수(2012). 예비창업자 개인적 특성요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예비창업자 경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유통경영학회,* 15(4), 41-53.

조준희·김찬중(2010). 소규모 창업의 경영성과 탐색적 연구,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43-59.

채서일(2005). *사회과학조사방법론,* 서울 : 비앤엠북스..

황보윤(2011). 소상공인 외식서비스업체의 경영성과 요인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6(2), 51-73.

Aldrich, H., Rosen, B., & Woodward, W.(1986). Social behavior and entrepreneurial networks.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1, 239-240.

Altinay, L., Madanoglu, M., Daniele, R., & Lashley, C.(2012). The influence of family tradition and psychological trait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31(2), 489-499.

Ardichvili, A., R. Cardozo & S. Ray(2003). A theory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y identification and development,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8(1), 105-123.

Arthur, M. B., & Rousseau, D. M. (1996). Introduction: The boundaryless career as a new employment principle. The boundaryless career: *A new employment principle for a new organizational era,* 3-20.

Ajzen, I.(1982). On behaving in accordance with one's attitudes. *In Consistency in social behavior: The Ontario symposium,* Erlbaum Hillsdale, NJ: 2, 3-15.

_____(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Bahn, S. S. & Jang, S. H.(2010). A Study on the Success Factors of Women Entrepreneurs with Organizational Type: Focused on the Profit and Non-profit Organization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3(2), 813-836.

Bandura, A.(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122.

_____(1997). Self-efficacy: toward a unaging theory of behavioral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2(2), 191-195.

Baum, J. R., Locke, E. A., & Smith, K. G. (2001). A multidimensional model of venture growth.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2), 292-303.

Barclays Report(2015). The psychology of entrepreneurship: A data driven study into the motivation behind new business creation, *Barclays report,* June 2015, 1-32.

Bateman, T. S., & Crant, J. M. (1993). The proactive component of organizational behavior: A measure and correlate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4(2), 103-118.

Bates, T.(1995a). A comparison of franchise and independent small business survival rates. *Small Business Economics,* 7(5), 377-388.

_____(1995b). Self-employment entry across industry group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0(2), 143-156.

Brass, D. J., Galaskiewicz, J., Greve, H. R., & Tsai, W.(2004). Taking stock of networks and organizations: *A multilevel 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7(6), 795-817.

Bird, B.(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42-453.

Birley, S., & Westhead, P. (1994). A taxonomy of business start-up reasons and their impact on firm growth and siz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1), 7-31.

Brockhaus, R. H.(1982). *The psychology of the entrepreneur.*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39-57.

Bronson, J. W. & Morgan, C. P.(1998). The role of scale in franchise success: Evidence from the travel industry.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6(4), 33.

Burt, R. S.(1983). *Corporate profits and cooptation: Networks of market constraints and directorate ties in the American economy.* Academic Press.

_____(1992). *Structural holes-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_____(2000). The network structure of social capital.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22, 345-423.

Burt, R. S. & Raider, H. J.(2000). *Creating careers: women's paths through entrepreneurship.* University of Chicago and Institute Européen d'Administration d'Affaires (INSEAD).

Carland, J., W. Ill, Carland, J. W., Carland, J A, & Pearce, J.W.(1995). Risk taking propensity among entrepreneurs, small business owners and managers. *Journal of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7(1), 12-23.

Carter, N. M., Gartner, W.B., Shaver, K. G., Gatewood, E. J.(2003). The career reasons of nascent entrepreneu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8(1), 13-39.

Chae, S. I.(2005). *Social science search methodology,* Seoul: B&M books.

Chandler, G. N. & Jonsen. E.(1992), The Founder's self-assessed competence and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7(3). 22-236.

Chen, C., P. Greene & Crick, A.(1998). Doe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distinguish entrepreneurs from manage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4), 295-316.

Cheong. Y. H. & Ha, K. S.(2012). A Study on Individual Characteristic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Startup Business Candidate, *Korea research academy of distribution and management,* 15(4), 41-53.

Cho, J. H., Kim, C. J. & Song, M. G.(2012). A Study of the Entrepreneurship Effect on Management Performance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Business School and Management Consulting,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25(1), 19-39.

Choi, M. G., Shim, J. H. & Kim, M. G.(2012). A Study on the Factors of Franchisee's Entrepreneurship Influencing Business Performances, *Korea association of business education,* 27(3), 1-18.

Covin, J. G., & Slevin, D. P.(1986). The development and testing of an organizational-level entrepreneurship scale.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1(1986), 626-639.

_____(1989). Strategic management of small firms in hostile and benign environment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0(1), 75-87.

_____(1991). A conceptual model of entrepreneurship as firm behavio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1), 7-25.

Crant, J. M.(1996).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3), 42-49.

Dess, G. G., & Lumpkin, G. T. (2005). The role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in stimulating effective corporate entrepreneurship. *The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19(1), 147-156.

Dollinger, M. J.(1984). Environmental boundary spanning and information processing effects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7(2), 351-368.

Drucker, P. F.(2005). Managing oneself. *Harvard Business Review,* 83(1), 100-109.

Evans, P., & Wurster, T. S. (2000). *Blown to bits: How the new economics of information transforms strategy.* Harvard Business Press.

Feldman, D. C. & Bolino, M. C.(2000). Career patterns of the self-employed: Career motivations and career outcome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8(3), 53.

Feltz, D. L. (1988). Self-confidence and sports performance. *Exercise and sport sciences reviews,* 16(1), 423-458.

Gartner, W. B.(1985). A conceptual framework for describing the phenomenon of new venture cre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4), 696-706.

Granovetter, M. S.(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360-1380.

Gray, B., & Ariss, S. S.(1985). Politics and strategic change across organizational life cycl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4), 707-723.

Grünhagen, M., & Mittelstaedt, R. A. (2005). Entrepreneurs or investors: do multi-unit franchisees have different philosophical orienta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3(3), 207-225.

Hansemark, O. C.(2003). Need for achievement, locus of control and the prediction of business start-up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4(3), 301-319.

Hackman, J. R. & Oldham, G. R.(1980). *Work redesign.*

Hoang, H. & Antoncic, B.(2003). Network-based research in entrepreneurship: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8(2), 165-187.

Hong, J. P. & Yang. H. S.(2014). A stud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determinant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1), 141-157.

Hwang, B. Y.(2011). Determining Factors on Small Food Service Business Performan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6(2), 51-73.

Ibarra, H. (1992). Homophily and differential returns: Sex differences in network structure and access in an advertising firm.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22-447.

Jang, J. Y.(2015). *A Study of Prep-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Franchise Selection Factors.* Ma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Industral And Entrepreneurial Management, Chung-Anag University.

Johannisson, B.(1990). Community entrepreneurship-cases and conceptualization.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2(1), 71-88.

Johnson, B. R.(1990). Toward a multidimensional model of entrepreneurship: The case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the entrepreneu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4(3), 39-54.

Katz, J., & Gartner, W. B. (1988). Properties of emerging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29-441.

Kickul, J., & Gundry, L. (2002). Prospecting for strategic

advantage: The proactive entrepreneurial personality and small firm innov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0(2), 85-97.

Kim, H.(2012). The entrepreneurial factor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n student,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7(1), 263-271.

Kim, K. Y.(1999). A Study on development plan of the entrepreneurship type of opening restaurants, *Tourism research,* 13(1), 69-84.

Kim, S. T.(2014). *The Effect of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among Chinese College Student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s,*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Kim, Y. E.(2013). *The effect of physical environment and psycolological characteristics on entrepreneurial performance in a restaurant industry: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network,*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and entrepreneurial management, Chung-ang university.

Kim, Y. J.(2008). *The influence of personal characteristics on social network size in organization and the impact of social network size and strength on job performance,*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Kwangwoon university.

Ko, K. H.(2002). *Effect of Organizational Member's Social Network on their Job Attitudes.* Ma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ogang University.

Knight, R. M.(1984). The independence of the franchisee entrepreneur.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pre-1986), 22(000002), 53.

Krueger, N.(1993). The impact of prior entrepreneurial exposure on perceptions of new venture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1), 5-22.

Krueger, N. F. & Brazeal, D. V.(1994).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91-104.

Krueger, N. F., Reilly, M. D., & Carsrud, A. L.(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 411-432.

Kwon, M. Y.(2013). *Study on the difference of preference of venture business type affected by prep entrepreneur's entrepreneurial spirit characteristic,* Master's thesis, SMEs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Larson, A., & Starr, J. A.(1993). A network model of organization form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7(2), 5-16.

Laumann, E. O., Galaskiewicz, J., & Marsden, P. V. (1978). Community structure as interorganizational linkag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455-484.

Lee, C. W.(1999). *A study on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performance,* doctorate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_____(2013). *SPSS 20.0 Manual,* Soeul: Jyphyunjae publishing.

Lee, H. S. & Lim, J. H.(2015). *SPSS 22.0 Manual,* Soeul: Jyphyunjae publishing.

Lee, H. T. & Jiang, J.(2013). The Effects of Chinese College Student``s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r Distribution Area, *Korea research academy of distribution and management,* 16(6), 133-143.

Lee, J. & Wong, K. K.(2004). The impact of accountability on racial and socioeconomic equity: Considering both school resources and achievement outcome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1(4), 797-832.

Lee, J. H.(2009). A Study on the Feasibility Analysis of Franchisee Case and Independent Entrepreneurship Cas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4(4), 27-43.

Lee, J. W.(2000).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The Korean Small Business Review,* 22(1), 121-146.

Lee, S. J. & Hwang, B. Y.(2010). Exploratory study on a psychological traits changes by entrepreneurship short-term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5(1), 19-44.

Lim, Y. K.(2011). Differences Between Franchisees and Independent Business Owners: Empirical Evidences and Policy Implications, *Journal of distribution research,* 16(5), 141-169.

Matsuno, K., Mentzer, J. T., & Özsomer, A.(2002).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proclivity and market orientation on business performance. *Journal of marketing,* 66(3), 18-32.

McClelland, D. C.(1965). N achievement and entrepreneurship: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4), 389.

_____(1978). Managing motivation to expand human freedom. *American Psychologist,* 33(3), 201.

Michael, S. C.(1999). Do Franchised Chains Advertise Enough?' *Journal of Retailing,* 75(4), 461-478.

Mill, J. S.(1848).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With Some of Their Applications to Social Philosophy.* 1857. George Routledge and Sons, Manchester.

Miller, D. (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770-791.

Morris, M. H.(1998). *Entrepreneurial intensity: Sustainable advantages for individuals, organizations, and societies.* Greenwood Publishing Group.

Morrison, E. W.(2002). Newcomers' relationships: The role of social network ties during social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5(6), 1149-1160.

Murray, H. A.(1938). *Explorations in personality.*

Nga, J. K. H.. & Shamuganathan, G.(2010).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traits and demographic factors on social entrepreneurship start up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Ethics,* 95(2), 259-282.

Lin, N. (2001). *Guanxi: A conceptual analysis.* Contributions in Sociology, 133, 153-166.

Oh, H. K.(2015). *A comparative study on success factors of foundation in franchise and non-franchise of jewelry retail business,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NID fusion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Oh, H. Y.(2015). *The effect of prer-entreprenerus' psychological traits on start-up type preferenc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yonggi university.

Ostgaard, T. A., & Birley, S.(1996). New venture growth and personal network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36(1), 37-50.

Park, M. R.(2012). *A Study on the Effects of Social Enterprise Managers' Leadership Competency, Business Environment Characteristics and Network Activities on the Business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Honam University.

Park, J. H.(2005). *Ties beyond the organization's boundary : career network and work attitude,* Ma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Peng S. Chan, & Robert T. Justis.(1993) To franchise or Not to franchise?, *Management decision,* 31(5).

Quinn, R. E., & Cameron, K. (1983). Organizational life cycles and shifting criteria of effectiveness: Some preliminary evidence. *Management science,* 29(1), 33-51.

Raider, H. J. & Burt, R. S.(1996). Boundaryless careers and social capital, The boundaryless career : *A new employment principle for a new organizational era,* 42(2), 187-200.

Rauch, A., & Frese, M.(2007). Let's put the person back into entrepreneurship research: A meta-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owners' personality traits, business creation, and success. *European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6(4), 353-385.

Ryan, R. M.(1982). Control and information in the intrapersonal sphere : An extension of cognitive evaluation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3), 450.

Ryan, R. M., & Deci, E. L.(1995). Human autonomy. In Efficacy, agency, and self-esteem (pp. 31-49). *Springer US.*

Schumpeter, J. A.(1950). The march into socialism.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446-456.

Sexton, D. L., & Bowman, N.(1983). Comparative Entrepreneurship Characteristics of Students. Wellesley, M.A: Babsson College, 212-231.

Shane, S.(2005). *From ice cream to the internet: Using franchising to drive the growth and profits of your company.* PH Professional Business.

Shane, S., Kolvereid, L. & Westhead, P.(1991). An exploratory examination of the reasons leading to new firm formation across country and gender.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6(6), 431-446.

Shapero, A., & Sokol, L. (1982).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72-90.

Shaver, K. G. (1995). The entrepreneurial personality myth. *Business and Economic Review,* 41(3), 20-23.

Shin, K. S. & Yang, D. W.(2007). The Empirical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Service Orientation and Venture"s Success in Restaurant Business, *The Korean Academic Associat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20(6), 2639-2666.

Starr, J. A.(1990). *Resource parsimony and resourcefulness in new venture creation: lessons from habitual entrepreneurs.* Unpublished dissertation proposal and work-in-progress. The Wharton School, University of Pennsylvania.

Starr, J. A., & MacMillan, I. C.(1990). Resource cooptation via social contracting : Resource acquisition strategies for new ventur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986-1998)*, 11(5), 79.

Stevenson, H. H., & Jarillo-Mossi, J. C.(1990). A paradigm of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management,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11, 17-27

Stevenson, H. H., Roberts, M. J., & Grousbeck, H. I.(1989). *Business ventures and the entrepreneur.* Irwin, Homewood, IL.

Stewart, W. H., & Roth, P. L.(2001). Risk propensity differences between entrepreneurs and managers: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1), 145.

_____(2007). A meta-analysis of achievement motivation differences between entrepreneurs and manager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5(4), 401-421.

Van de Ven, A. H. (1992). Suggestions for studying strategy process: A research not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3(5), 169-188.

Van Gelderen, M., & Jansen, P. (2006). Autonomy as a start-up motive.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13(1), 23-32.

Wiklund, J. & Shepherd, D.(2005).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small business performance: a configurational approach.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0(1), 71-91.

Wilson, F., Kickul, J. & Marlino, D.(2007). Gender,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s: Implications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1.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1(3), 387-406.

Wilson, P. M., Rodgers, W. M., Fraser, S. N. & Murray, T. C.(2004). Relationships between exercise regulations and motivational consequences in university students.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75(1), 81-91.

Yook, C. H.(2015). *Effect of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on the Intention of Entrepreneurship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Mentoring,* Doctorate thesis, Hoseo Graduate of venture.

Yoon, B. S.(2004).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Factors, *Korean business review,* 17(2), 89-110.

Yu, Y. H. & Yang, D. W.(2008). An Empirical Study of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Career Orientation, Social & Cultural Perception, and Entrepreneurial Support Programs, *Korea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1(5), 2347-2368

Zhao, H., Seibert, S. E., & Lumpkin, G. T.(2010). The relationship of personality to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performance :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management,* 36(2), 381-404.

Zhao, L. & Aram, J. D.(1995). Networking and growth of young technology-intensive ventures in China.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0(5), 349-370.

Study on the Determinants for the Type of New Venture Creation in Korea: Franchising or Independent Entrepreneurship*

Huh, Eun Jeong**
Lee, Keon H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determinants for the type(Franchising or Independent Entrepreneurship) of new venture creation.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n a total of 398 samples of survey gathered from people in Seoul, Gyoeng-gi, Daegu, and Gyeonsangbuk-do. This study includes not only personal traits, but also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network as independent variables. Findings of the analysis reported that Entrepreneurial intention, Need for achievement, Autonomy, Entrepreneurship, Self-efficacy, Education, Network, Age, and Income have significant discriminant power, in order of priority, on general two groups of Franchising and Independent Entrepreneurship. However, in the study, autonomy is revealed as the sole discriminant factor on considering venture creation groups. Based on the result, the study contribute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in relation to the determinants for the type of franchising or independent entrepreneurship.

Keywords: Personal traits, Type of new venture creation, Franchising, Independent Entrepreneurship, Discriminant analysi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Business for University Entrepreneurship Center, funded by the Korea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in 2015. This Study was based on Huh, Eun Jeong's Master's thesis at Yeungnam University.

** Doctoral Candidate, Graduate School, Yeungnam University, April.huh.1026@gmail.com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International Economics and Business, Yeungnam University, keonhee@ynu.ac.kr